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세네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조선인민의 복리와 귀국의 발전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평화국 대통령  
막 키 쌀

2017년 9월 1일 다까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전체 민주공  
고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제학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평화가 있기를 바  
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2017년 9월 5일 칸사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기네스부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아름다운 귀국의 국경절을 맞으며 광고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당신께서 행  
복하고 건강하실 것과 아울며 선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각하께서 건강하시고 귀국을 병도하시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기네스부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기네스부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기네스부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제학안하는 바입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회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꼬데

2017년 9월 8일 꼬나크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아름다운 귀국의 국경절을 맞으며 광고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당신께서 행복하고 건강하실 것과 아울며 선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데니싸쓰느케쏘

2017년 9월 8일 브라자브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며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비다데비반다리

2017년 9월 9일 까뜨만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며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비다데비반다리

2017년 9월 9일 까뜨만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며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비다데비반다리

2017년 9월 9일 까뜨만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며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기네스공화국 대통령

비다데비반다리

2017년 9월 9일 까뜨만투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생활관의 혼전적인 원칙들이 호상존중과 출직성,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  
나는 이 평절날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귀국에 평화와 복리,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까센코

2017년 9월 9일 민스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까르타르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원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발전과 진보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케마 모바쏘고

2017년 9월 10일 말라트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까르타르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될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원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끼라르국가 주장**  
파임빈하마드 알타니

2017년 9월 9일 도하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며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7년 9월 4일 메히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존재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을 맞는 9월 9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서 각하께서는 까르타르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최전연설초소들을 찾으시여**

장제도에는 자신께서 제일 사랑

수소란처럼 웃는 축제에서 전개되는 축제는 제일 사랑하는 축제입니다.

이는 경제에는 까르타르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축하를 드리게 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양시 학생 청년들의 어온혁명사적지에로의 답사행군 진행**

장제도에는 자신께서 제일 사랑하는 축제입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자력 자 강의

정신으로 만장

야전 동원 군일

군과 동원군

로자들이 사회

주의 수호전의 제 1 체제 제 1 선

참호를 지켜보았다는 높은 자각을

있고, 울해 가을길이 첫 시작부터

현장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이 성과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대회의 앞장에서 카울걸이 전투를

실속있게 지휘하고 있는 군일군

들의 실천력을 떠나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魄심, 진취

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하며 당당히 민민

앞에 자리에 출발하고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만리마선구지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울해의 가을

길이 전투에서 군체임일 군人们的

중시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중심고리를 정착

해 찾아보기 위해 군집인 역

량을 총집중하여 끌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투승리는 싸우

전에 마련된다가 가을길이 전투

성과 역시 그 즐거움을 어떻게 빙

둘러온 것에 크게 달려있었

었던 것이다.

가을길이 전투준비에서 선호

차를 옮겨 정하는 문제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면서 군당위원장

## 중심고리를 찾아 끌장을 볼 때까지

### 동립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막문식 등투는 생 각되는 바가

있어 산성형 등등장으로 내려

갔다.

그것은 이 농장이 지난해 자

체의 모력으로 가을길이를 군집

으로 제일먼저 결속하였기 때문

이었다.

농장의 일군들을 만나 그 미

길을 찾던 책임일군은 그것이

바로 브라포르수리정비를 민족

없이 하여 유통실적을 올리고

마다 이산작으로 대중을 이끌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곳 일군들의 체질회원 사업기

물이다.

우선 군기기관 일군들을 농장,

작업반들을 담당시켜 그들이

모든 브라포르수리정비를

민족없이 끌어내고 이동식 말무기

생산장을 놀이는데 있다는 것을

찾아위기 되었다.

중심고리를 찾아낸데 기초하여

군집일군은 모든 농장들에서

유해 가을길이를 치워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투승리는 싸우

전에 마련된다가 가을길이 전투

성과 역시 그 즐거움을 어떻게 빙

둘러온 것에 크게 달려있었

었던 것이다.

가을길이 전투준비에서 선호

차를 옮겨 정하는 문제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면서 군당위원장

수단을 총동원하여 브라포르수

수리정비와 이동식 말무기

기술을 전부 끌어내고 가을길이

놀이는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군집의 브라포르

수리정비와 이동식 말무기

기술을 전부 끌어내고 가을길이

농장에서 강명이 창자보수도 중요

하게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

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다

나은 부족들을 요구되었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면밀한 준비를 갖춘 모든 일군

들이 당장 핵심과목의 의지를

제기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기어이 허락해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일과, 턱 조각이 나도

## 《대북정책》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고 방향 역시 정착도에서 심히 멎어난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지금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으로 완전히 풍진박산남 운명에 처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당국의 『대북정책』은 『특특한 목표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미국상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책』, 『의회하고 주제넘은 주장에 담은 정책』, 『민족의 치환과 요구를 의연한 정책』 등으로 비난받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결코 나마 『대화』를 부르지만 현 당국이 등록내 정책 등을 데려온 강화하는 대체로 밝힌 민심을 막강한 경솔한 처사로, 실행한 보수『정권』의 정침을 그대로 담습하는 행위로 준원히 단죄구한하고 있다.

한편 언론, 전문가들은 원『정부』가 북남관계에서 『주도권』을 위하며 하였지만 오히려 『대북정책의 한계점』 만드러니라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개탄하고 있다.

당연한 위기는 아닐수 없다.

현 남조선당국이 무슨 깨끗이나 되는 것처럼 들고나온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기초로 한다는 극히 보순적이고 전략적 실현불가능한 확장하고 그지없는 것이다.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의 진보와 보수, 미 일상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다같이 절이 어렵고 북남관계 문제를 봐보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재역량강화조치를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미친듯이 걸고면서 반공화국제제 암박소통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해 등의 둘격대가 되어 민족을 만약하는 제국노들이 바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이다. 그들

은 『최대의 압박과 판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조선정책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조회를 잘 이룬다』고 폐

없이 험준하면서 대결총심을 로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양에 먼저 가겠다, 미국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현 남조선집권자는 정작 당선되자, 도죽은 외면하고 대양진이 미국상권부터 찾다가 『은인』이니 뛰어 하며 억거운 노죽을 부리었다. 그러나 북남관계가 제대로 풀려나갈 만무하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 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북남사이에 전혀 풀려 성격이 아닌 역 문제를 한사코 『대북정책』에 또다시 『북에 유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드러난다.』 느니 뛰어 하며 끝수없이 돌아온 것이다.

조선반도학문제가 미국에 의해 산생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절실히 조미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자는 결

과 함께 『대북정책』을 대체로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며 그것을 북남관계의 억지로 풀려나갈 시도하고 있다.

동쪽에 대한 세계압박은 대화의 걸을 가로막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꼭

남조선집권자는 조선반도학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끌어들여서는 미친한 종말을 고한 박근혜를 데려온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에는 『정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은 『대화와 암박병행』을 읽을 때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암박병행』을 떠드는 것은 현 북남관계에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방식을 당화하기 원한 솔직으로밖에 되지 않다.

##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갈 것이다

원주민들이 분주함을 피워대고 있다. 미국과 그 주총재들은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 그 후순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걸고들면서 또다시 새로운 반공화국 「세계결의」를 조작해 냈다.

대책없이 실체대고 있는 미국의 패기는 주제조선의 편속공격, 편속강타와 함께 열흘이나 간자들의 최후탈락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에게 종구적령장을 선고하는 송전포성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터쳐 올리면서 반미대결권을 총격살하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승리의 전통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것을 잊지 않으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만천막우정에 서 숭례한 백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주와 정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정구한 투쟁에서는 결코 승리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세국주의 자들에게 나아가자원을 유린당하고 식민지노에 생활을 강요하였던 가슴아픈 사설도 새겨져 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위봉이 어떻게 헤엄쳤는가 하는것을 세계는 잊지 않았다. 승리의 상징과 같은 혼장, 예술들이 생존을 위해 힘겹게 활동하였다. 자랑스럽고 성대하게 기념되던 승리의 날들도 빛을 잊었다.

역사는 승리가 저절로 만날되거나 우지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주면이 충행 조건이 좋아서 이룩된것도 아니다. 한밤중에도 이온세액에도 로제트총조립전투장과 아슬아슬한 발사현장을 스스럼없이 찾으시어 새생의 철단무기 개발의 혁명길을 한치 한치 업어놓으신 정애하는 최고령도자들의 불같은 헌신과 보고가 있어 오늘과 같은 기적이 창조되었다.

우리 조국의 거대한 역사적변화과정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달력을 펼친 형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진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더욱 길이 자리잡게 하였다.

세계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가 있다. 어떻게 되어 조선이 수십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주총재들의 강도높은 세제와 물세속에서도 그려온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며 강대해질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달력을 펼친 형도가 있기를 기대하여 주제조선의 전진을 고도화하면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알을 더루어 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승리는 오직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 한다.

현실은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강대해지고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 번 실증해 주고있다.

세계는 앞으로도 반미대결권에서 송리에 승리만을 거둘때 가는 주제조선의 강용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온다. 그 이후에는 차기의 힘으로 계획되고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는 차기의 힘을 밀고 그

걸고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며 그것을 강회해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뿐고나갈수 있다는것,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놓내이며 무장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동의 일부 나라들의 교훈은 외세의 존은 방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나라들은 국들에 기대를 걸고 전제집권을 키우려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들은 남편 쳐다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가지고있던 철정체력을 까지 평화하였다. 그로 하여 차례전은 전란의 창화였다.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이 김정은 동지의 힘으로 전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달력을 펼친 형도에 대해서도 그의 명도밀에 조선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룩하겠는지 국제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알을 더루어 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승리는 오직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과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자력자강의 위력을 키우려 하면 해무핵교도화의 길을 면할없이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고 자력자강의 청진력을 소유한 인민이 있는 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아당은 하늘의 별을 따보겠다는것과 같은 허황한 당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앞으로도 반미대결권에서 송리에 승리만을 거둘때 가는 주제조선의 강용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온다. 그 이후에는 차기의 힘으로 계획하고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는 차기의 힘을 밀고 그

## 방글라데슈정당,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을 축하하여 방글라데슈 차리야 당, 일민련맹, 주체사상연구소, 방글라데슈 조선원선 및 렌데성위원회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원전

성공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핵무력강화에도 매밀았다는것을 인정하고 미 국본토를 핵침화속에 불어넣을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방글라데슈의 전통적인 민족은 적자세력들의 악랄한 행동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조선로 통당과 조선인민의 두통에 굳은 지지와 편대심을 보낸다.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죄책을 치우면서 사회주의 힘으로 원전로를 다시 한번 시도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죄책을 치우면서 사회주의 힘으로 원전로를 다시 한번 시도하였다.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을 축하하여 민주당과 중동당,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창화였다.

우리 인민의 반미립장을 명명해 대하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과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자력자강의 위력을 키우려 하면 해무핵교도화의 길을 면할없이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고 자력자강의 청진력을 소유한 인민이 있는 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아당은 하늘의 별을 따보겠다는것과 같은 허황한 당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앞으로도 반미대결권에서 송리에 승리만을 거둘때 가는 주제조선의 강용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온다. 그 이후에는 차기의 힘으로 계획하고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는 차기의 힘을 밀고 그

의 원전단계목표를 달성하기

※

우리의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창화성공을 축하하여 민주당과 중동당,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륙간판도로에 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창화였다.

우리 인민의 반미립장을 명명해 대하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과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자력자강의 위력을 키우려 하면 해무핵교도화의 길을 면할없이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고 자력자강의 청진력을 소유한 인민이 있는 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아당은 하늘의 별을 따보겠다는것과 같은 허황한 당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앞으로도 반미대결권에서 송리에 승리만을 거둘때 가는 주제조선의 강용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온다. 그 이후에는 차기의 힘으로 계획하고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는 차기의 힘을 밀고 그

의 원전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조선중앙통신】

기독교는 판권을 둘러고 있다. 보건법전설과

에리오피아에서 보건부문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 청부가 밤런데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전국적으로 행원을 비롯한 치료설립과 허우하우민들은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정기념 전국체육대회에서 이 힘찬 캐디란 성과를 발표하였다.

대기자리에서 밤런의 성과를 보면서 세계평화에 호언민들은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